뮤지컬로 만나는 8090세대 그때 그 문화

6월 6일까지 '철수, 영희' 공연
광주극단 '플레이팩토리' 작품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관객과 가요 함께 부르며 호흡
해태타이거즈 등 공감 소재도

'뮤지컬 철수, 영희' 공연 모습.

"누구라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싶어라…."

28일 '뮤지컬 철수, 영희' 공연이 열린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유쾌하면서도 잔잔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가창력과 댄스, 섬세한 연기가 어우러진 1시간 40분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함은 물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다.

'뮤지컬 철수, 영희'는 복고 로맨스 코미디물로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20~30대 주인공들의 사랑과 꿈 그리고 우정의 이야기를 담아냈으며 6월 6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맞선자리에 나갔다가 철수와 영희라는 흔한 이름 때문에 맞선 상대를 혼동하면서 시작한 두 주인공의 애틋하면서도 사랑이야기다. 작품은 20~30대 주인공들이 마주하는 현실 속 고난을 발랄하고 유쾌하게 풀어냈다.

8090세대들의 그때 그 문화를 무대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뮤지컬 철수, 영희'는 당시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의상과 소품으로 극의 몰입을 더했고 시대상을 반영한 웃음코드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남행열차', '그것만이 내 세상', '불티', '여행을 떠나요', 영화 '라붐'의 OST로 익숙한 'reality', 김창완의 '안녕', '가리워진 길', '어젯밤 이야기' 등 익숙하다 못해 친숙한 대중가요들로 가득찬 공연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또 무대소품으로 사용된 영화 '영웅본색', '람보' 포스터와 공중전화 위에 적힌 '용건만 간단히'라는 문구는 보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의 얼굴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철수' 역의 정해건, '영희' 역의 정유정, 친구 역의 임남염·박아경은 어느 하나 부족함 없는 연기와 노래실력으로 관객들을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손태영·박관민·박하은의 감초 연기가 돋보였으며 특히 포장마차에서 이별의 슬픔으로 떠들어대는 '만취녀' 역의 김율은 관객들을 연신 폭소하게 만들었다. 버스차장 역을 겸한 김율은 1950년대 가요인 '시골버스 여차장'을 완벽히 소화해 내며 큰 박수를 받았다.

'뮤지컬 철수, 영희'의 재미중 하나는 관객들에게 익숙한 대중가요를 함께 부르며 배우들과 호흡할 수 있다는 점. 박수를 유도하고 함께 즐기기를 권하는 배우들 덕분에 관객들은 작품을 관람하러 왔다는 느낌보다 함께 무대를 만들어간다는 기분이 들기 충분했다.

'뮤지컬 철수, 영희'는 광주 배우들로 구성된 극단 플레이팩토리의 창작 뮤지컬로, 이들이 앞서 무대에 올렸던 연극 '너에게로 또다시'를 뮤지컬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광주 배우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기에 해태타이거즈, 패밀리랜드 등 광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이 다분히 사용된 점이 극을 보는 재미를 더했다.

그 시절 청춘을 함께한 친구, 연인 혹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때 그 시절이 주는 낭만을 느껴보길 추천한다.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전석 3만 5000원. 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3시·6시, 공휴일 오후 4시. 문의 1600-6689.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67회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심사위원〉
박재연(조선대 교수)
서윤진(광주교육대 교수)
선수정(경상대 교수)
이성은(전남과학대 교수)
허정화(순천대 교수)

◇ 피아노 초등부 3,4학년

▲ 최고상
172 권하은(불로초3)

▲ 금상
36 김송현(불로초4)
43 손하윤(효동초4)
44 김리엘(광주운암초3)
54 박하윤(송정중앙초4)
57 유희찬(광주교대광주부설초3)
64 임지성(광주서림초3)
67 김채은(송정중앙초4)
72 양민준(전주인봉초4)
81 임유민(용산초3)
98 박하현(광주송원초3)
120 안하은(일동초4)
123 박혜림(마동초4)
127 이나윤(용두초4)
160 최하진(운천초4)
165 박세아(논산내동초4)
178 강윤결(불로초4)
182 양지은(산정초3)
195 전재윤(목포신흥초4)
198 김에스더(목포국제기독학교4)

▲ 은상
5 신유안(한울초4)
6 김시준(한아름초4)
8 황서린(불로초3)
9 김세령(광주삼육초3)
22 박은유(남평초4)
29 장라율(불로초4)
33 최연진(불로초4)
37 이시온(빛고을초4)
39 김유진(불로초4)
42 박정민(불로초4)
47 전서희(대자초3)
49 김류아(광주효덕초3)
52 박진서(불로초4)
58 한태은(전주인봉초3)
69 김도율(광주교대목포부설초3)
76 조선빈(각화초4)
89 박주원(광주학운초4)
92 서지원(광주학운초4)
100 김다현(빛누리초4)
104 김수명(회현초4)
109 한은서(전주교대전주부설초4)
121 이하윤(운천초3)
122 전현겸(전주화산초3)
124 정소윤(문정초3)
153 유현준(운천초4)
184 강태경(불로초3)
199 강서율(태봉초4)
200 정채은(광주운암초4)
201 장예서(하백초4)
202 김보민(목포항도초4)

▲ 동상
1 홍채린(한울초4)
4 박지우(불로초3)
16 양연서(불로초3)
19 김미서(본촌초4)
20 전현지(효동초3)
21 이하은(불로초3)
26 오하민(불로초3)
28 김다온(본촌초3)
31 장수현(광주송원초4)
45 박정빈(불로초4)
48 류지민(불로초4)
53 권도아(빛고을초4)
59 이서인(운리초3)
63 최민아(대자초4)
68 양지수(전주인봉초4)
74 오시현(선운초4)
75 박민지(신창초3)
83 이지인(화개초4)
85 고대현(불로초3)
91 정유라(방림초4)
99 최연후(빛가람초4)
102 김담우(빛가람초4)
103 김은채(빛누리초4)
108 송단오(광주교대광주부설초4)
111 고준희(치평초3)
114 김정원(운천초3)
130 봉현진(문우초4)
131 최은류(운천초3)
144 박다홍(살레시오초4)
146 김서은(수완초4)
148 박하진(불로초4)
154 조서우(조봉초4)
166 강소희(수완초4)
168 이하윤(불로초3)
176 김시훈(목포항도초3)
181 문축복(제석초3)
187 최준수(불로초3)
188 강예은(월광기독학교4)
190 김지민(불로초3)
192 안건희(효천초4)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현재를 구성하는 동력인 기억 시적 형상화

이명숙 시인 세 번째 시조집
'튤립의 갈피마다 고백이' 펴내

'현대시조 100인선'을 출간한 바 있는 이명숙 시인이 세 번째 시조집 '튤립의 갈피마다 고백이'(문학들)를 펴냈다.

기억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다수 수록된 이번 작품집은 모두 68편의 시를 담고 있다. 이때의 기억은 이송희 시인의 표현대로 "단순하게 과거를 떠올리거나 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를 구성하는 동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화자의 기억은 역동적이다. 또한 그것은 고스란히 시적 형상화에도 반영이 돼, 이미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펼쳐낸다.

"한물간 사랑에도 밑불은 남았을까/ 마른천둥 치듯이 쨍쨍하게 울었다/ 아닌 척/ 널 중심으로/ 피었다가/ 여의는…"

위 시 '해바라기'는 관계의 거리와 대상의 이중성을 드러낸 작품이다. 거리는 기억에서 파생되며 이중성은 '당신'과 '나'를 함의하는 해바라기가 발현하는 의미다.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서도 특유의 독창적 이미지와 세련된 표현을 선보인다. 표제시 '튤립의 갈피마다 고백이'는 선명한 이미지가 돋보인다.

"이 하루 조롱하며 마침 불어온 바람 나를 겨냥한 듯이/ 슬쩍 민 것뿐인데/ 이생이 살얼음인 걸 또 까먹어 피멍 든"

튤립이 환기하는 심상은 깊고 예리하고 아름답다. 대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그려내는 솜씨가 만만치 않다. 그저 스쳐 지날 수 있는 길가의 튤립을 시인은 순간 포착으로 절묘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한편 이명숙 시인은 지난 2014년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와 같은 해 '시조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조집 '썩을,' 등을 펴냈으며 시조시학 젊은시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애인 문학작품 공모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와 (사)광주장애예술인협회는 장애인 작품을 오는 6월 24일(오후 6시)까지 공모한다.

시, 시조, 수필, 동화, 동시, 단편소설 등 6개 부문이며 주제는 제한이 없다. 출품작은 미발표 작품으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공모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와 전남이어야 하며 나이, 성별, 경력은 제한이 없다.

결과 발표는 개인별로 통보하며 밴드와 단체 카톡방에 발표한다. 선정된 작품은 협의 후 최종 문학집 수록 확정 시 창작원고료를 지급하며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접수는 이메일 제출(art6810998@naver.com) 또는 우편접수(61903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02(2층 202호 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담당자)로 하면 된다. 문의 062-681-099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 음악·음식으로 즐긴다

ACC, 아문화예술체험·특화교육

아시아 문화를 음악과 음식으로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꽃으로 아시아를 표현해 보는 교육도 펼쳐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이 'ACC 아시아문화예술체험'과 'ACC 아시아특화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개설된 문화예술체험은 아시아 음악과 결합된 브런치 형태의 교육으로 오는 6월 8일과 7월 6일 2회에 걸쳐 운영한다.

간단한 아시아 음식이 제공되며 직장인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1시)로 편성했다. 현경채 음악학자 겸 아시아 여행 작가가 강사로 나서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종교와 문화, 음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시아특화교육은 아시아 콘텐츠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직장인 대상 저녁 강좌와 중장년층을 위한 오후 강좌로 나눠 펼쳐진다. 꽃으로 아시아의 문화 등을 다채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먼저 오는 6월 22일 진행되는 '정원을 둘러싼 아시아 자연문화: 꽃바구니 만들기' 교육은 아시아 정원 문화을 모티브로 나만의 꽃으로 표현해 보고 이어 7월 20일 펼쳐지는 '동양의 르네상스 시대: 꽃다발 만들기'는 아시아 명화에서 받은 영감을 꽃으로 형상화하는 교육이다.

희망자는 각 교육 별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